

인문콘텐츠학부

- 역사콘텐츠전공
- 지적재산권전공
- 문헌정보학전공
- 한일문화콘텐츠전공

인문콘텐츠학부는 역사콘텐츠전공, 지적재산권전공, 문헌정보학전공, 한일문화콘텐츠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문사회과학의 다양한 분과 학문들을 깊이 있고 폭넓게 공부하여, 이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전문성까지 함께 익히는 곳이다.

역사콘텐츠전공은 역사학을 바탕으로 역사와 문화를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시대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인문학 소양을 갖춘 인재의 육성을 목표로 하여 역사 연구와 역사 교육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역사콘텐츠 기획 전문가 및 문화유산콘텐츠 기획 전문가 등을 양성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전공은 민법, 상법 등 기초 법학의 학습을 통하여 공무원, 공공업체, 자격증 시험, 금융과 증권, 부동산 등의 분야에 진출하는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고,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관련법과 경영, 기술 표준화를 선도하며,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융합형 실용주의, 글로벌 수준의 전문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공정한 지적재산권의 유통을 활성화하고, 선진문화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헌정보학전공은 SI와 데이터 중심의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 전주기 관리와 서비스를 선도할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인문학적 통찰력과 최신 IT 기술을 바탕으로, 정보와 이용자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결합하여 SI 활용 역량과 현장 실무 능력을 고루 갖춘 융합 인재를 육성한다. 문헌정보학전공은 정보의 체계적 조직과 분석을 통해 지식 평등과 정보 복지 실현에 앞장서는 미래지향적 정보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한일문화콘텐츠전공은 글로벌 창의융합 문화콘텐츠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일본학, 비교문화학, 문화콘텐츠학을 접목시킨 독창적 융합학문을 지향하고 있다. 한일의 다양한 문화 현상을 인문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콘텐츠화하는 문화-디지털융합콘텐츠 전문가를 육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